

EXPLORING CHANGES TO THE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OF
THE ELDERLY AS A RESULT OF DEATH EDUCATION:
THE CASE OF DONGDAEMUN CHURCH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HO YOUNG PARK

May 2020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HO YOUNG PARK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Younghwan Kim,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0

ABSTRACT

EXPLORING CHANGES TO THE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OF THE ELDERLY AS A RESULT OF DEATH EDUCATION: THE CASE OF DONGDAEMUN CHURCH

by

HO YOUNG PARK

Our society is in the middle of a transition from an aged society to a super-aged society. The increase in the elderly is a natural phenomenon as the average lifespan of a human becomes longer; the problem, though, is that the elderly have vague anxiety and fear about death and are thus unable to prepare for it with a sense of calm and meaning.

This project is a qualitative study focused on Nulbom College (the elder's college) in Dongdaemun Church. I launched the project with the aim of helping people to comfortably face death, the last gateway of their lives, and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more meaningfully.

To this end, I executed a case study with 12 elderly participants and analyzed how receiving death preparation education changed their liv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ractical programs, I concluded that, due to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death changed, the participants' anxiety about death decreased, and, overall,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a positive change in their lives and their faith.

KEYWORDS: Population Aging Phenomenon, Nulbom College, Death Preparation Education, Life 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Well-dying Act), Korean Understanding of Death

국문 초록

죽음 교육을 통한 노인의 정서, 인지, 행동 변화에 대한 탐구: 동대문교회를 중심으로

by

Ho Young Park

한국사회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노년층의 증가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노년층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동대문교회 늘봄대학(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언젠가 맞이하게 될 생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남은 여생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질적연구이다.

본 프로젝트는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노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12 명의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고, 심층면담과 실행연구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감소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키워드: 인구고령화 현상, 늘봄대학, 죽음준비교육,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한국적 죽음이해

SUMMARY

As the human lifespan becomes longer, the proportion of the aged in our society is increasing. People tend to fear and thus avoid death, but it is inevitable, and our elderly must prepare for their own death. My D.Min project and qualitative research began when a believer who had fear and curiosity about this death asked me to give a lecture.

The problem of death had always seemed remote to me. I had experienced death closely and carried out numerous funerals, but the issue of my own death had always seemed distant. The request of this believer, however, opened my eyes to the need for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he problem of death is that people approach it with fear and anxiety, which prevents them from having a peaceful death. The purpose of this death preparation education is to teach people how to live a more meaningful life through the proper religious understanding of death, to allow them to face death more comfortably and thus spend the rest of their life meaningfully, without fear and anxiety.

To this end, I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elderly of Nulbom College (the elder's college) in Dongdaemun Church. I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with 12 voluntary participants. I examined the medical, psychological, philosophical, theological, and Christian theories of death to help with the qualitative research of this study.

I used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to examine the subjects' understanding of death according to the above theories. I gathered data on the participants' attitudes about death and derived a total of three categories. They are, first, "anxiety about death," second, "uncertainty about how to prepare for death," and third, "expectation and hope for the right

understanding of death." I then conducted six session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o solve and overcome these issues.

After the six sessions, I again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observe what changes had taken place — in their death anxiety and fear, their uncertainty about how to prepare for death, and their views about the afterlife and redemption view — as a result of this practical death preparation.

After the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participants' level of fear and dread of death was significantly eased, and death preparation education helped them re-envision death as a gateway to beautifully complete their life. The participants also adopted more positive thinking about the rest of their lives, realizing the preciousness of time and desiring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in abundance and beauty.

This project convinced me that death preparation education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not only in Dongdaemun Church but also in the Korean Church generally. Through this education, people can adopt the proper Christian view of death and gain the confidence that death is a gateway to redemption.

Our society has every reason to hasten this nurturing and dignified death preparation education. It is rapidly aging without the foundation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We must expand death preparation education now.

As we expand death preparation educ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programs for various ages, to provide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whole families, and to offer group programs for bereaved families. We must also select and develop textbooks that fit the culture of Koreans and our churches. Lastly, we must foster professional personnel for death preparation education and form comfort care teams within churches to promote a beautiful end of life.

I hope that this project will serve as a turning point for the church community and the elderly in a super-aged society, inspiring changes in values, attitudes, thought-patterns, and behavior in people's faith lives. Finally, I hope that pastors will change their perception and recognize the need for education to prepare for death.

국문 요약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사람들은 이 당면과제인 죽음을 기피하며,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멀리하고 싶어도 죽음은 누구나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두려움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성도가 나에게 강의를 요청하면서 나의 디민 프로젝트와 질적연구가 시작되었다.

나에게 있어 죽음의 문제는 생소한 것이었다. 늘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수 많은 장례를 집례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늘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로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이 성도의 요청에 의해 나는 죽음준비교육에 눈을 뜨게 되었다.

동전의 한쪽면과 같은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죽음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 죽음준비교육은 신앙적으로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도록 하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대문교회 늘봄대학(노인대학) 노년층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12 명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자들과의 실행연구를 하였다. 나는 이 연구의 질적 연

구를 돕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신학적, 기독교적 죽음이해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죽음이해의 이론과 연구 참여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대상의 본질적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 콜라지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3 개의 범주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 ‘죽음에 대한 불안감’, 둘째, ‘죽음준비에 대한 막연함’ 셋째, ‘죽음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다. 이 도출된 범주의 내용을 해결하고 극복해 내기 위해서 여섯번에 걸쳐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죽음불안과 두려움, 죽음준비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내세관, 구원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심층면담을 다시 진행하였다.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이후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정도가 현저히 완화되었고, 죽음준비교육을 통하여 죽음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하나의 관문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남겨진 시간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남은 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죽음준비교육이 동대문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안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종교관을 가지며, 그에 따르는 죽음관과 구원의 확신을 얻기 바란다.

무엇보다 한국사회는 따뜻하고 품위 있는 죽음준비교육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준비교육과 사회적 제도의 틀도 확립되지 않은 채로 빠르게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죽음준비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죽음준비교육의 과제가 있다면 다양한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 사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정서와 교회의 현실에 맞는 교재의 선택과 개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임종 돌봄 팀을 교회 안에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프로젝트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속에서 교회공동체들과 노년층들에게는 삶의 가치와 신앙생활에 있어 정서, 인지, 행동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목회자들에게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 지기를 소망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Page
I. 서론	
Introduction	1
A. 문제 제기 Presentation of the Problem	1
B. 논지 Thesis	3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Definitions of Terms	6
D. 청중 Audience	11
E.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ations	11
F. 독창성과 공헌 Originality and Contribution	11
II. 이론적 배경	
Theology of Backgrounds	14
A. 죽음의 정의와 죽음에 대한 이해 Definition of Death and Understanding of Death	14
1. 죽음의 정의 Definition of Death	14
2. 죽음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Death	15
a. 의학적 죽음이해 Medical Understanding to Death	15
b. 심리학적 죽음이해 Psychological Understanding to Death	15
c. 철학적 죽음이해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Death	17
d. 신학적 죽음이해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Death	19
e. 기독교적 죽음이해 Christian Understanding of Death	21

B. 죽음준비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Purpose and Necessity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24
C.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	
Preparing for Christian Death in Pastoral Care.....	26
III. 질적연구방법과 논의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Discussion	28
A.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s	28
B. 연구 방법론	
Research Method	30
C. 연구 결과	
Research Results	32
1. 죽음에 대한 불안감	
Anxiety about Death.....	35
2. 죽음에 대한 막연함	
Vagueness about Death	36
3. 죽음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기대와 바램	
Hope and Desire fo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Death	39
D. 논의 및 해석	
Discussion and Interpretation	40
IV. 죽음준비교육의 실제	
Death Preparation Education.....	42
A.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Purpose of the Death Readiness Education Program.....	43
B.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Specific Conten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44
1 회기: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44
2 회기: 죽음준비교육의 이론	
Theory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47

3 회기: 관계도 그리기 및 편지쓰기	
Relationship Diagrams and Writing	48
4 회기: 자서전 쓰기	
Autobiography	50
5 회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The End of a Beautiful life	52
6 회기: 남은 인생 계획 세우기	
Planning for the Remainder of life.....	54
C. 죽음준비교육 이후 삶의 변화	
Life Changes After Death Preparation Education.....	56
1. 가장 의미 있었던 죽음준비교육	
Most Significant Preparation for Death.....	58
2. 삶의 가치관 변화	
Changing Values in Life.....	59
3. 신앙생활의 변화	
Change in the Life of Faith.....	61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and Suggestions.....	62
부록: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Informed Consent Form	67
참고문헌	
Bibliography.....	69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제기

나는 교회행정과 장년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구목사이다. 특히 늘봄대학 (동대문교회만의 노인대학 명칭)을 담당하면서 노인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느 날 90대의 홍길동(가명 사용)이 심방을 요청하였다. 그분은 서류 한 장을 건내 주셨는데, 그 서류는 ‘사전장례의향서’였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아산 병원 울산 대학 해부학과 연구실로 보내 줄 것과 장례식은 교회와 조문객의 교통 편리를 위하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행하며, 부고 통지는 교회와 협회 그리고 종친회에는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다. 그리고 해부학과 연구실에서 약 3년 후 화장하여 유골을 유족에게 인계하면 유골함을 인수받아 가족 묘에 안치해 달라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힘들 것 같으니 혹 제가 죽으면 이 사전장례의향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또한 70대의 김철수(가명 사용)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있는데 설교 중에 한번 언급해 주거나 아니면 강의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왔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동적으로 늘봄대학을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노년층에게 죽음을 언급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것과 같이 금기 시 되었기에 언급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런데 홍길동의 유언장을 읽은 후에 늘봄대학 참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대부분 사별의 아픔을 경험해 보았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지만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본적도 없고, 교육을 받았다 하여도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었을 뿐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전무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들도 수 십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프로젝트에서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주는데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남은 인생을 보다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기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죽음준비교육이다. 노년기에는 지나온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며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맞이할 수 있는 죽음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고령화사회속에서 동대문교회 노년층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며, 신앙인으로서 두려움을 벗어나 어떻게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질적연구의 인터뷰를 통해서 노년층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 그 분석을 통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노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제시해 보려고 한다.

B. 논지(Thesis)

대한민국 통계청(2016.12.8.)에 의하면 고령인구(2015~2065)는 2015년 654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65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현재 12.8%에서 4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5년 12.8%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 초과할 전망이다.²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5년 51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이 넘고, 2065년 505만명으로 2015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³ 8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15년 1%수준에서 2065년에는 11.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이해된다.⁴

이제 한국 교회도 노년층들에 대한 문제를 목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논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연령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뉴가르텐(Bemice Neugarten)은 연령기의 범위를 생활연령에 따라서 연소노인(young-old), 중고령노인(middle-old), 고령노인(old-old)로 분류하였다. 연소노인이란 아직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능력이 절정에 달한 55-65세의 노인을 말한다. 중고령노인은 65-7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퇴직한 상태이지만 아직은 신체적으로 심각한 노화를 겪고 있지 않는 그룹을

¹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추계,” last modified December 18, 2016,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57935.

² 통계청, 30.

³ 통계청, 31.

⁴ 통계청, 31.

말하며, 고령노인은 신체적 노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병약하며 의존적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며, 대부분 75세 이상의 사람들이다.⁵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 또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노인 연령 선이 상이 하기는 하나, 대부분 전형적인 은퇴의 나이인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말한다.⁶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있다.⁷

한국 교회는 점점 더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넘어서고 있는 현실속에서 교회가 노년층들에게 어떤 죽음교육을 해야하며, 어떤 노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지를 모색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한국의 인구구조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1965년엔 유소년층(0~14살)이 두터운 정상적인 피라미드 형태였지만 지난해인 2018년엔 30~50대가 많은 항아리형으로, 2065년에는 역삼각형 구조로 바뀐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비중은 2018년엔 7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2065년(47.9%)엔 꼴찌가 된다. 전문가들은 2032년부터 시작될 총인구 감소보다는, 노동력이 줄고 부양 부담은 커지는 인구 구성비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⁸

한국은 과거 다수의 사망자 형태에서 과거 대비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회적 인구 변화는 앞으로 노동인구의 감소와 부양 계층의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여

⁵ 홍숙자, *노년학 개론* (서울: 하우, 2010), 30.

⁶ 이은성, “고령화 시대 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당면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vol. 40, no. 40 (December 2014): 392.

⁷ 유성열,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큰 틀 바꾼다,” *국민일보*, December 29, 2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9224>.

⁸ 황보연 and 김경옥, “50년뒤 노인비중 세계최고,” *한겨레 신문*, December 28, 2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475.html#csidx2c91450c1b462f3b7cadb396fff918e.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 수치는 바로 한국교회의 고령화로 이어지며 유럽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젊은 계층의 성도 보다 노인층의 성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교회의 등장에 직면하고 있다.⁹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인구고령 현상은 역할상실, 소외감,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신앙의 문제와 함께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인간 발달단계 중 삶의 마지막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는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음의 불안은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발생은 가속화된다. 정명선은 그의 미술 치료 연구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 치료가 노인의 죽음 불안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노인이 젊은이들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노년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가 임박한 죽음과 관련된 문제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¹⁰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면서도 죽음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여 아름다운 노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건강, 교양, 레크레이션, 여행에 치중하고 있다.

⁹ 최광현,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목회상담의 실천적 가능성을 위한 연구,”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vol. 19 (November 2012): 249.

¹⁰ 정명선,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 치료가 노인이 죽음 불안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학회* vol. 11, no. 2 (February 2004): 231-56.

노년기에 다루어야 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노인 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금 현재 노인 죽음에 대한 문제는 목회분야보다 일반사회과학, 사회복지, 노인학회, 간호학회에서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¹¹ 그러나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죽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할 죽음준비에 대한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C. 사용할 용어 정의

1) 인구고령화 현상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로 넘어서니 이제는 초고령화(Post-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로 변화하고 있다.¹² 의학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산업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기대수명 향상 등으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¹³

¹¹ 서혜경, “죽음을 준비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제언,” *한국노년학회* vol. 1 (January 1992): 11-17.

¹² “고령화 사회,” Naver 두산백과, accessed December 30, 201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1549&cid=40942&categoryId=31611>.

¹³ “인구 고령화,” Daum 백과사전 천재학습백과, accessed December 30, 2018,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58331>.

2) 늘봄대학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노인대학이라는 표현보다는 늘봄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늘봄대학은 70세 이상의 노년층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0년에 시작하여 지금 현재까지(2020년) 매년 2학기제로 운영(3월-6월, 9월-11월)하고 있으며, 한학기당 3개월의 활동을 하고 있다. 늘봄대학의 의미는 항상 푸르고, 싱그러운 즉 봄과 같은 마음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3) 죽음준비교육

죽음준비교육은 죽음학에서 파생된 분야이다. 죽음학(Thanatology)은 희랍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신체적 죽음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¹⁴ 죽음학은 고대 희랍철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다가 후대에는 심리학, 의학, 상담학, 교육학, 사회 복지학, 노년학, 목회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로 확대되었다. 알폰스 디켄(Alfons Deeken)은 죽음학을 이렇게 설명한다:

Thanatology란 죽음에 관계 있는 테마를 학문적으로 취급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죽음의 철학, 의학, 문화인류학, 종교 예술 등 인류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¹⁵

이 죽음학은 전 연령대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노년층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노년층들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차 죽어가는 것을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¹⁴ 이이정,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212.

¹⁵ 김옥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in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ed.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 84.

자신이 살아왔던 일상이 지속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불균형한 정서적 긴장은 노인들을 불안과 초조, 분노와 절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듯 노년기에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솔직한 논의와 삶에 대한 정리를 통한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필요성과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¹⁶ 죽음준비교육은 현재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과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갖게 하는 교육이라 하겠다.¹⁷

4)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일명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6년 1월17일 입법되었다.¹⁸ 2017년 8월 4일 1차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대를 시행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는 환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가 시행되었다:

이 법의 발의 단초는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보라매 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의사와 가족들이 ‘살인방조죄’와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인 한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다. 김 할머니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 후인 2018년 2월, ‘존엄사법’이라 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실시되었다.¹⁹

¹⁶ 김옥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84.

¹⁷ 황창익,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연구” (MA thesis,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5.

¹⁸ “연명의료결정법,” Naver 지식백과, accessed February 13,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743&cid=43667&categoryId=43667>.

¹⁹ 홍종임, *웰빙과 웰다잉은 한 곳 차이다* (서울: 북랩, 2018), 22.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질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가운데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5) 한국적 죽음이해

한국적 목회 상황에서 죽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유교, 불교, 무속신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교는 천명사상, 주역사상, 음양오행론, 제사제도, 상제례 의례면에서 중요한 종교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왔다. 유교가 종교로서 지탱되는 가장 중요한 매개가 제사제도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제사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의례이다. 망자의 회귀의례라고 할 수도 있다. 망자는 제사를 통해 삶의 현실 속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생자는 망자와 삶을 공유한다. 이렇게 본다면 죽음은 영원한 별리도 아니고, 삶의 냉혹한 단절도 아니다. 망자가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서 현존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삶 자체가 생자와 망자가 공존하는 것이라는 이해이다.²⁰ 그러므로 조상이란 지금 이곳에는 없지만 영원히 있는 분들이다. 점차 잊혀 질 수는 있지만 소멸하지는 않는다. 유교는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런 유교의 제사제도에 영향을 받았다.²¹ 불교를 통해서도 인연생기설(因緣生起說) 사상을 뿌리깊게 영향을 받았다.²²

²⁰ 김경제, “죽음이해,” in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5쇄 증보판*, ed.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6), 288.

²¹ 김경제, 289. 유교의 제사제도는 단순히 도덕적 상징형식이 아니고, 종교적 실재로서 의례라 할 수 있다. 이 제사 행위가 이루어질 때 조상의 영들은 이 땅에 아직 남아 살고 있는 후손들의 지극한 정성과 기도에 감응한다는 것이다.

²² 김경제, 291. 인연생기설(因緣生起說)은 삼라 만물과 만유는 그 스스로 자존하거나 상존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인연에 의해 발생하고 살아진다는 가르침이다. 불교는 이 인연생기설에 기초하여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 즉 죽음이란 커다란 생명의 연기적 존재양태이며, 큰 생명 흐름의 과정 속에 있는 한단계 고리일 뿐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죽음이라는 실체’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음이 해탈이요 불생불멸이다.

이 인연생기설은 자연히 업(카르마)이론을 낳는다. 업(Karma)이란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특히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생유(生有) 기간동안에 집착과 망집으로 인하여 남기는 정신적 물질적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의 교학에 의하면 수명은 업(業)에 의해 유지되고, 업력(業力)이 존속하는 한 그 업력의 변화에 따라 삶과 죽음도 전변(轉變)의 과정 속에 있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輪廻)라고 말한다. 윤회는 죽어 다른 존재로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²³

무속신앙에서는 생사화복, 인과응보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났느냐에 따라 생사여부가 판가름 나고 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호흡을 멈추면 그 사람이 입던 옷을 지붕 한가운데로 가져가 북쪽을 바라보며 이름을 세 번 길게 부른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혼이 다시 몸에 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복 혹은 초혼이라고 하며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으로 규정한다. 무속신앙의 구조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이원론적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다.²⁴

무속신앙에서는 인간생명이 죽으면 이승의 흙으로 환원되는 육신이라는 신체와 달리, 혼령이라고 부르는 신령한 불멸적 존재가 육신을 떠나서, 일정한 정화단계를 거쳐 저승이라는 혼령계로 이주해간다고 말한다. 육신을 떠난 혼령은 저승사자 앞에서 인과응보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신앙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상징물들을 무속적인 의미로 여기거나, 제사에 대한 신앙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인과응보적인

²³ 김경제, “죽음이해,” 291-92.

²⁴ 김경제, 287-88.

보응(報應)의 가치관이 여전히 의식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전이해를 가지고 죽음준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D. 청중(Audience)

본 프로젝트는 70 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연구로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 교회 뿐만 아니라 복지관과 호스피스 교육자,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대학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가족들과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 고령 사회와 노년층을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E. 범위와 한계(Scope and Limitations)

본 프로젝트는 고령사회에서 교회로 하여금 노인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 참여하게 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소외되고, 고독감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시대의 노년층들에게 죽음준비교육과 프로그램을 제시해 볼 것이며,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 하며, 객관적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들과 생각들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교회공동체 안이라는 한계성과 다양한 연령층이 아닌 70 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가 죽음에서 오는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도 있고, 설문을 회피하려는 한계점이 있었다.

F. 독창성과 공헌(Originality and Contribution)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유사한 선행연구들이 계속 있어왔다. 먼저 이경희(2008년)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준비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죽음에 대하여 개방적일수록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할 수록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송자(2012년)는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구 구성학적 특성(연령, 종교, 결혼)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고, 연령대가 높을 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혜경(2017년)은 웰다잉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에서 웰다잉 프로그램 실시 후 죽음불안이 감소하였고,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죽음준비교육의 선행을 연구들을 살펴보면 죽음준비교육이 전 연령층을 포괄하여 누구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노년층들에게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노년층들은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동대문교회 노년층들도 수 십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 언급해 주지 않았고, 언급할 수도 없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본 프로젝트의 공헌과 독창성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교회가 언급하기 어려워했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죽음준비교육 과정을 통해 이것이 단순히 시대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차원을 넘어 한 개인의 삶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둘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후 참여자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 죽음의 인식과 긍정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다는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우자, 가족과 친척, 그리고 타인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Chapter II

이론적 배경 (Theoretical Backgrounds)

A. 죽음의 정의와 죽음에 대한 이해

1. 죽음의 정의

죽음준비교육에 앞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문화권에 따라 다르고 죽은 장소와 연령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개인의 가치관, 철학,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건강상태 등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나 의미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를 갖게 된다.²⁵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보면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 이라고 하였고, 한국어 대사전에는 죽음을 사(사), 끝장,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세포내의 연속적인 생리적 변화가 불가역적으로 되어 정지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²⁶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의 종결로 ‘죽어가는 과정’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죽어가는 과정’이란 출생의 순간부터 시작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생애 전체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면서 한번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더욱 자주 일어나게 된다.²⁷

²⁵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2001), 289-90.

²⁶ 박진홍,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ThM thesis, 목원대학교대학원, 2007), 4.

²⁷ 김연숙 and 김지미, “노인의 사회 인구적 특성과 죽음불안: 죽음불안의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1 (January 2009): 275-89.

2. 죽음에 대한 이해

a. 의학적 이해

의학에서는 죽음의 판정기준을 두가지로 보고 있다.²⁸ 첫째로 폐, 장기의 정지로 인한 호흡이 없어지고 심장의 박동이 정지된 상태라고 말한다. 인체는 호흡이 정지되면 산소와 모든 영양물질의 공급이 중단되므로 조직세포에 변성을 일으켜 영구히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태를 불가역적 사망(irreversible death) 혹은 생화학적 사망(biological death)이라 한다.²⁹

그런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이 죽음에 대한 정의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심폐 소생술의 발달과 기계적 인공호흡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위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둘째로 뇌 기능의 정지를 죽음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손상된 뇌세포는 인공적으로 그 기능의 회복이나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죽음의 확실한 판정은 뇌의 기능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b. 심리학적 죽음이해

심리학에서 죽음은 어떤 본능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 부정적 감정이 후대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퀴블러 로스(E. Kübler Ross)의 죽음에 이르는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³⁰

²⁸ 신명희 et al.,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7), 524.

²⁹ 전재규, *통전적 치유와 건강* (대구: 보문출판사, 2005), 175.

³⁰ 정정교,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45.

첫째 단계는 부정과 거부의 단계이다. 많은 사람들은 얼마 살지 못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하게 부정을 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부정적인 단계가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용의 단계로 넘어간다.³¹

둘째 단계는 죽어가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분노의 단계이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냐’는 거부의 반응이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것이 분노를 느끼거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등 복잡한 감정과 질문들에 부딪히게 된다. 의사가 간호사나 가족들이 분노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러나 환자가 느끼는 이 분노의 감정은 단순히 죽음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일 뿐이다. 즉 공포 때문에 생기는 반응일 뿐이라는 것이다.³²

세번째 단계는 타협하는 단계이다. 환자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신과, 의사와 또는 자신의 운명과 타협을 하려고 한다. 환자와 가족은 죽음이 눈 앞에 다가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타협을 모색한다.³³

네번째 단계는 우울의 단계이다. 자신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체념을 하면서 우울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³⁴

다섯 번째는 수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지난 날을 회고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며 안도감, 운명에 대한 독특한 수용, 그리고 많은 경우 혼자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 문병객을 달가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³⁵

그러나 퀴블러 로스의 심리적 죽음의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주로

³¹ 정정교,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40.

³² 정정교, 41.

³³ 정정교, 42.

³⁴ 정정교, 43.

³⁵ 정정교, 43.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지만 때로는 우울의 단계 없이 바로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단기간에 거치거나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자연사라든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알폰스 데켄(Alfons Deeken)은 이 다섯 가지 단계에서 한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다. 여섯번째 단계인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는 단계’라 이름 지었다.³⁶ 이 여섯번째 단계로 들어간 환자는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죽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현재의 시간을 유한하게 함으로 오히려 현재적 삶에 의미를 주고 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죽음 후의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죽음은 부활의 세계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다.³⁷

c. 철학적 죽음이해

죽음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죽음의 공포(the fear of death)”라는 문제가 있다.³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와 플라톤(Plato)은 ‘영혼은 본래 불멸이며 육체가 죽음으로써 신체는

³⁶ 알폰스 데켄, 生き よく笑い よき死と出会う 잘 살고 잘 웃고 좋은 죽음과 만나다, trans. 김태영 (서울: 예감, 2017), 156.

³⁷ 정정교,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45.

³⁸ 정을용, “죽음의 이해와 관계적 돌봄에 관한 연구” (ThM thesis, 협성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 40.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사후에도 계속 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³⁹ 죽음의 순간이야 말로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보았다.⁴⁰

둘째로 공자를 비롯하여 에피쿠로스(Epikouros)는 죽음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절대로 괴로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⁴¹ 셋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을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라고 보았다.⁴²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⁴³

특히 키에르케고어(Søren Aabye Kierkegaard)는 죽음을 종교적 초월이라고 보았다. 죽음은 자신 각자의 개별성에 의한 죽음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⁴ 또한 그는 절망의 개념을 밝히면서 절망은 인간을 나락 속으로 빠지게도 하지만, 인간이 신에게 귀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⁴⁵

결국 인간은 자기를 부정함으로 영원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은 죽음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⁴⁶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보았다.⁴⁷ 니체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사랑하는 운명애를 강조하였으며 그렇게 살았을 때 자유로운 죽음을

³⁹ 알폰스 데켄, *잘 살고 잘 웃고 좋은 죽음과 만나다*, 180.

⁴⁰ Plato, *The Dialogues of Plato* 플라톤의 네 대화편, trans. 박종현 (서울: 서광사, 2011), 300-01.

⁴¹ Epikouros, *Pleasure 쾌락*, trans. 오유석 (서울: 문학과지성, 1982), 43.

⁴² 신교남,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죽음이해와 죽음교육” (PhD diss.,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8), 5.

⁴³ 신교남, 177.

⁴⁴ 신교남, 178.

⁴⁵ 신교남, 178.

⁴⁶ 신교남, 178.

⁴⁷ 신교남, 179.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이다.⁴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피조물’, 또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즉 인간은 죽음이 주는 불안과 염려를 겪어내며, 거기에서 죽음이 삶에 주는 진정한 의미의 성찰을 통해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이러한 철학적 죽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깊이 성찰하게 되어지고, 죽음에 대하여 가장 깊고 넓은 의미를 제공해준다.

d. 신학적 죽음이해

신학자들은 죽음을 이해함에 있어 성서적인 관점의 죽음이해를 신학화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교부 신학자인 이레니우스(Irenaeus)는 다른 어떤 신학자들보다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인 신학자였는데, 그는 죽음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에 오게 된 형벌로 보았다.⁵¹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원히 죄인으로 남고 인간을 둘러싼 죄악이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다. 이후로 죽음은 더 이상 형벌적인 성격이 아닌 구원의 수단으로 이어졌다. 이레니우스의 이런 죽음이해는 성서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주장을 신학화한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⁴⁸ 신교남,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죽음이해와 죽음교육” 179.

⁴⁹ 정동호, *철학 죽음을 말하다* (서울: 산해, 2004), 113.

⁵⁰ 신교남, 179.

⁵¹ 김성민, *생명의 의미와 새로운 그리스도* (서울: 다산글방, 2004), 94.

강조한 주장이다.⁵²

어거스틴(St. Augustine) 역시 인간의 죽음을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⁵³ 그런데 그에게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아담의 행위 속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의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즉 본래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선하기만 한데, 그에게 자유의지가 동시에 주어져서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만 사용하기보다 불순종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죽음을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했다.⁵⁴ 첫째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생물학적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죽음이다. 이 두가지 죽음 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의 죽음이며, 이러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⁵⁵

마틴루터(Martin Luther) 역시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에게 닥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다시 선사 되었다고 보았다. 루터는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고 보았다.⁵⁶

그래서 신앙인은 죽음과 죄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에

⁵² 김성민, *생명의 의미와 새로운 그리스도*, 94.

⁵³ 김성민, 94.

⁵⁴ 김성민, 95.

⁵⁵ 김성민, 95.

⁵⁶ 한국문화신학회, *죽음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기: 그리스도교의 죽음관* (서울: 한들출판사, 2004), 108.

대한 희망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극복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⁵⁷

칼빈(John Calvin)은 죽음에 대하여 만약 누가 경건한 신자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품안에 들어가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⁵⁸ 그러나 완전한 영광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유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칼빈은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탄생 이상의 의미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기에 행복의 길이라고 보았다.⁵⁹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쉴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Friedrich Ernst Daniel)는 이전까지의 기독교 역사안에서의 죽음 이해와는 달리 죽음에 대한 좀더 자연적인 견해 즉 “원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견해를 주장하였다.⁶⁰ 그리고 적극적 의미에서, 죽음은 인간이 더 성장하기 위하여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 진화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았다.

e. 기독교적 죽음이해

기독교적 죽음 이해는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죽음 이해를 한마디로 서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죽음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면에서 서로 다른 죽음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 나타난 죽음은 첫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저주로서의 죽음이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창세기 1 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⁵⁷ 한국문화신학회, *죽음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기*, 108.

⁵⁸ 김선숙, “한국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PhD diss.,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6), 101.

⁵⁹ 김선숙, 101.

⁶⁰ 박노권, “다윈주의 시대에서 죽음에 대한 신학적 접근,” *기독교사상논단* vol. 1, no. 12 (December 1999): 32.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⁶¹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주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살게 하였으나,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선고되었다 (창세기 2:17).⁶²

죽음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해이다.⁶³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즉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⁶⁴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주의 사건으로 이해된다.

또한 죽음은 죄와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성질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며 절망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⁶⁵

신약성서에 나타난 죽음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종착지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생명, 영생을 위한 출발이자 한 과정으로 규정한다.⁶⁶ 즉 영생을 위한 출발이자 한 과정이라고 규정하기에 인간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일 뿐 끝이 아니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⁶¹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세기 2:7)

⁶²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7)

⁶³ 정을용, “죽음의 이해와 관계적 돌봄에 관한 연구” 22.

⁶⁴ 서현, “죽음 이해의 유형론 중 기독교적 죽음이해 연구: 기독교적 장례를 위한 제언”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5), 43.

⁶⁵ 정을용, 22.

⁶⁶ 황명환, “죽음이해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PhD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40.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종교이다.⁶⁷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이요, 전부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 죽음 이해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죽음은 역설적 죽음이며, 자기 초월적 죽음이다.⁶⁸ 죽음은 절망이며 슬픔이지만 기독교인의 죽음은 절망을 넘어선 기쁨과 소망이 있는 죽음이다.

성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라고 말한다. 죽음은 누구나 선택이 아닌, 필연임에도 현대사회는 죽음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듯 도망치고 있다. 죽음에 대해 현대인들은 ‘아름다운 이별’, ‘삶의 완성’ 등 아름다운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죽음은 여전히 공포와 두려운 대상인 것이다.

김영사의 *삶을 위한 죽음의 미학*에 보면 ‘팔십이 넘은 지금, 나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 아니 죽음에 이르는 길이 더 무섭다. 내 삶이 죽음을 맞이하기에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을 한다.⁶⁹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이 꼭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의 길일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위한 출발이기 때문에 절망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죽음이 삶의 종말이 아니라고 말한다. 죽음 이후에 대한 논의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한다. 이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되고, 이 물

⁶⁷ 황명환, “죽음이해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40.

⁶⁸ 장경희, “기독교 죽음준비교육이 죽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익산 삼일교회 죽음준비교육을 중심으로” (MA thesis., 한림대학교 대학원, 2016), 15.

⁶⁹ 이창복, *삶을 위한 죽음의 미학* (서울: 김영사, 2019), 10-12.

음은 결국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인간은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루의 삶은 하루만큼의 죽음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가운데 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땅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준비교육일 것이다.

B. 죽음준비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인간은 어느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죽음을 교육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이 죽음준비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삶을 진지하고 더욱 건전하게 대처할 수 있고, 죽음을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에 필요한 것이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잘 살기(Well-being)와 더불어 잘 죽기(Well-dying)는 현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하였다. 이 두 주제는 별개가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⁷⁰

우리가 죽음을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 현재 내 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 죽음준비교육의

⁷⁰ 김옥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89.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폰스 디켄은 ‘죽음준비교육의 15 가지의 목표’를 통해서 말한 바가 있다:

디켄이 말하는 죽음준비교육의 15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죽음에 이르는 심리 변화를 이해한다. (2) 죽음의 의미를 사색한다. (3) 비탄교육에 대해 배운다. (4)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를 줄이고 불안한 심리적 부담을 제거한다. (5) 죽음기피증을 제거한다. (6)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예방할 방법을 배운다. (7) 말기 암환자의 알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다. (8) 죽음과 관련되는 윤리적 문제를 배운다. (9) 사망과 의학 및 법률에 관한 여러 문제를 배운다. (10) 장례식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11) 주어진 삶이 제한적임을 인식하고 가치관을 재정립한다. (12) 죽음의 예술을 배운다. (13) 죽음 철학의 탐구. (14) 여러 종교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15) 사후 생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한다.⁷¹

이는 죽음준비교육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15 가지의 목표를 간추려서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⁷² 첫째, 우리는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삶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⁷³

이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될 때가 있다.⁷⁴ 죽음교육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게 되는 비탄과 애도의 과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배움은 우리가 겪게 될 상실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상실로 인해 고통 당하는 주변 사람들

⁷¹ 김옥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90.

⁷² 전명구 et al., *100 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감리교회의 노년목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8), 118.

⁷³ 전명구 et al., 118.

⁷⁴ 전명구 et al., 119.

을 돌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인 문제를 배운다.⁷⁵ 윤리적인 문제는 자살,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이며, 법적인 것은 죽음 판정, 뇌사, 장기기증, 시신기증, 유언서 작성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실제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C.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은 삶과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삶의 위기와 문제를 재 조명하면서 미래에 대한 신념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⁷⁶

또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두렵고 기피하고 싶은 죽음의 인식에서 벗어나 영적 안정감을 주며, 기독교적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게 도와준다.⁷⁷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첫번째 목적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자기 성찰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⁷⁸ 죽음에 대한 준비된 경험들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연결시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

⁷⁵ 전명구 et al., *100 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감리교회의 노년목회*, 120.

⁷⁶ 강경아, “죽음준비교육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삶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 *중앙간호학회지* vol. 10, no. 2 (February 2010): 157.

⁷⁷ 강경아, 157.

⁷⁸ 성태순, “그리스도인의 죽음준비와 임종자를 위한 교육 목회적 돌봄 연구” (ThM thesis,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4), 44.

두번째 목적은 기독교적 죽음 이해를 갖도록 돕는다.⁷⁹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하며 부활 신앙에 동참하게 한다. 죽음을 교육함에 있어서 교회는 평소의 삶이 죽음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 인간의 전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인간 실존의 또 다른 측면을 알게 해준다. 교회는 인간의 죽음이 단지 좌절이나 단절이 아닌 삶의 완성이요 은총과 구원의 때이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가 되고,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을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예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준비시키고 교육하여야 한다.⁸⁰ 또한 죽음을 금기시하고 배제하는 문화를 극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⁷⁹ 성태순, “그리스도인의 죽음준비와 임종자를 위한 교육 목회적 돌봄 연구” 44.

⁸⁰ 정정교,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46-47.

Chapter III

질적연구방법과 논의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Discussion)

앞 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기독교적 이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A. 연구 참여자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내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분당지방에 속해 있는 동대문교회 늘봄대학 노년층들 중 70 세 이상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남 5 명, 여자 7 명 총 12 명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동대문교회에서 은퇴장로, 은퇴권사들로서 신앙생활을 한지 40-80 년이상 되었지만 죽음교육이 전무한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동대문교회는 70 세 이상 노년층들이 전교인의 40% 정도 되는 교회이다. 본 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죽음과 죽음준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의 지원과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사항

	성별	나이	신앙경력	출신지역
연구참여자 A	여	77	77	서울
연구참여자 B	남	77	52	서울
연구참여자 C	여	77	63	경기
연구참여자 D	여	73	71	경기

연구참여자 E	여	73	49	서울
연구참여자 F	남	72	51	서울
연구참여자 G	남	77	60	서울
연구참여자 H	여	81	81	경기
연구참여자 I	남	80	57	서울
연구참여자 J	남	77	60	서울
연구참여자 K	여	78	78	서울
연구참여자 L	여	73	47	서울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에는 연구 동의서 외에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면담 내용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면담내용은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될 것을 밝혔고, 연구 참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개적인 장소인 동대문교회 만나실(늘봄대학분들이 평상시에 친교모임을 하는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모임 시간은 화요일 (늘봄대학 정기 모임일) 오후 1시에 면담을 하였고, 면담시간은 60분내외로 하였다. 면담 시 모든 내용은 녹음할 것을 밝혔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익명성 여부와 모일 수 있는 요일이 한정되어 있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과 연구자의 관계가 한 교회의 교인과 목회자라는 특수한 관계이기에 진솔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참여자들은 나를 믿고, 면담을 진행하였고,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해 주었다.

면담 전 죽음에 대한 사전교육과 죽음교육의 목표가 죽음뿐 아니라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교육임을 인지시켜서 죽음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켰다. 연구가 종료되면 모든 자료는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고, 본 연구를 위해 면담 참여시 참여자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참여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면담 시 질문에 답하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동의서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와 담당교수의 연락처를 안내할 것이고, 또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엄격하게 윤리적인 보호 아래 연구를 진행할 것을 설명하였다.

B. 연구 방법론

본 프로젝트에서는 질적연구로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란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기술하며,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⁸¹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해 죽음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함으로서 삶을 더욱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으며,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죽음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현상학적 방법론 중 하나인 콜라이지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고, 이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대상의 본질적 구조를 도출해 내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죽음준비교육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면담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하였다. 여기서 심층면담이란 피면담자의 삶과 경험과 상황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⁸¹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0.

위해 면담자가 자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만남을 지속하는 연구 방법이다.⁸²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하여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면담 상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배제한 면담형식이다. 그래서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에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면담자의 개인적인 질문기술이나 진행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담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된 일련의 질문에 대하여 피면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할 수 있도록 만든 면담 방법이다.⁸³

본 연구에 사용할 주요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성별과 연령, 현재 누구와 거주하고 계십니까?
2. 동대문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요즘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혹시 앓고 있는 질병이 있으신가요?
3.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생각하셨습니까?
4.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만약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면 언제라도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6. 만약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죽음에 대비하기 위하여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⁸²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23.

⁸³ 김영천, 326.

본 프로젝트의 객관적 타당성을 위해 연구자의 편견을 버리는 ‘판단중지’(Epoché)를 할 것이다. 판단중지란 “현상에 관한 편견을 인지하고 제쳐 둔 다음,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과정”⁸⁴으로 현상학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주요한 판단중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년층들은 죽음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초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 노년층들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존경과 환영을 받고 있을 것이다.
3. 노년층들은 기도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4. 노년층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5. 노인들은 생애 대한 애착과 미련이 없을 것이다.

C.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참여자는 12 명으로 노년층 교인들이고, 그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동의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나는 12 명의 참여자들의 필사본을 여러차례 읽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다시 만나서 확인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4 명의 참여자가 참여 중단을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자 I와 K는 건강과 해외여행으로 인한 것이었고, 참여자 J는 익명이어도 자신의 면담 내용이 프로젝트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고, 녹음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 참여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L은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중단을 하였다. 총 12 명이 프로

⁸⁴ Nigel King and Horrocks Christine,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253-54.

젝트에 참여하였다가 8 명만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을 콜라이지의 연구 방법을 따라 내용을 분석하고, 각각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면담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3 개의 범주를 도출해 내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죽음에 대한 불안감’ 둘째, ‘죽음준비에 대한 막연함’ 셋째, ‘죽음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다. 면담 주제 내용은 총 37 개로 요약하였고, 이를 9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었고, 9 개의 주제를 3 개의 상위범주로 도출하였다.

〈표 2〉 콜라이지(Colaizzi) 자료 분석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주제
죽음에 대한 불안감	가족과 지인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친구들이 죽었다는 문자 - 가족력으로 인한 죽음 - 나보다 자녀들이 먼저 죽지 않을까 - 가족들을 남기고 가는 것
	죽음 과정의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 임종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다 - 육체가 불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다. 세상과 가족과의 단절
	죽음의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 죽음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
	건강 염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자기 객사, 고독사에 대한 불안 - 질병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담주지 않는것.
죽음 준비에 대한 막연함	사전 연명의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명치료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본다. - 10 년전에 의향서를 받았지만 아직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죽음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기대와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절대로 연명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공증 및 자녀의 사인도 받았다.
	장기 기증과 호스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기증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 -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 장기기증을 할 의향이 있다. - 호스피스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 - 내가 죽으면 장기 기증과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하였다.
	장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정사진을 오래전에 찍었다. - 유언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써보지 않았다. 장례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하다 본다. - 내가 죽으면 세 곳에는 알려야 한다고 당부해 놓았다. -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
	구원의 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다. - 기도하다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내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 죽으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간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다른것 같기는 하다.
	좋은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 건강하게 살다가 임종과정이 길지 않는것 - 잠자듯이 부르심을 받는 것 - 자녀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임종하는 것 - 임종시 의식이 있는것 <p>인식의 변화(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님)</p>

1. 죽음에 대한 불안감

심층면담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다. 나는 노년층들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와 범주별로 기술하고자 한다.⁸⁵

[가족과 지인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

(참여자 B)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70 명씩 8 반이었습니다. 졸업 당시 총인원이 560 명인데 그 중에서 160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 둘씩 떠났다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듭니다. 내가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였다면 불안과 공포가 없었을 텐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직 나에게 있어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C) 내가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아프지 않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야지 치매나 암에 걸려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준다거나 하면 안되잖아요.

[죽음 과정의 공포]

(참여자 H)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여자 A) 내가 임종 시에 자녀들에게 초라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족들에게 슬픈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자는듯 가고 싶어요.

(참여자 F) 찢어지고 없어질 육체인데도 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무섭고 떨립니다.

[죽음의 수용]

(참여자 E) 나이가 들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까지 그것이 쉽지는 않아.

(참여자 G) 나는 요즘 100 살까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⁸⁵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중 언급된 내용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하였다.

아내보다 1 년먼저 가면 좋겠어.

(참여자 C)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어야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먼저 하늘 나라에 가있는 가족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건강의 염려]

(참여자 D) 마음 같아서는 지금도 팔팔 한데, 몸이 움직이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이러다가 한번에 갈 수다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B)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다가 잠들 듯 죽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

(참여자 A) 나는 혼자 밖에 없는데, 건강이라도 해야지 누가 나를 챙겨 주겠어요. 그런데 어느때는 혼자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혼자서 가는 것 아닌가 싶어.

참여자들은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죽음에 대해 ‘이번에는 내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심적으로 부담을 주면 안된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긴 병에는 효자가 없으며, 고독사 내지는 단절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자들은 건강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으며, 혼자 고독사 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과 외로움과 우울에 대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2. 죽음에 대한 막연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E) 자녀들을 위해서 연명치료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연명치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평상시 말로는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는 하였지만 말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교회 권사님 한 분은 공증을 받아 놓으셨 데요. 나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H) 사전연명의향서를 10 년전에 받아 놓았는데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싫기는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꼭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D) 늘봄대학에서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사전연명의향서를 모두에게 주시면 같이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것 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 질것 같아요.

[장기기증과 호스피스 교육]

(참여자 C) 나도 우리 교회 한 권사처럼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했어요. 내 육신이 의사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여자 F) 장기기증을 생각해 본적 없어요. 장기가 없는 모습을 상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들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드네요.

(참여자 G) 만약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다면 그냥 조용히 편안히 죽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참여자 B)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다이고, 그냥 알고만 있고 싶어요.

[장례준비]

(참여자 A) 장례준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본적은 없지만 교회에서 영정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너무 일찍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 장례준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고 싶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장례준비를 해놓으면 그대로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참여자 B) 예전에 장례준비를 할 때 누구까지 부고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소한 교회와 가족 그리고 동창회에는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준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장례준비, 호스피스, 장기기증, 사전연명의향서 등에 대한 관심과 필요함을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절차도 모르고 있었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뿐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서도 모르셨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

홍종임의 웰빙과 웰다잉은 한 곳 차이다에 보면 죽음을 앞둔 1,000 명의 말기 암 환자들이 꼭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⁸⁶ “남겨진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지 않았던 것, 자신이 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종교를 몰랐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⁸⁷

또 죽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 마음과 달리 생애 마지막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⁸⁸ 등이 있었다. 심층면담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에게도 이런 후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참여자 A) 작년부터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어 내가 아기를 맡아 줄려고 했는데, 아들이 와서 엄마는 젊을 때 직장 다니느라 아이를 잘 안 키워 봤으니 장모님에게 아기를 맡길게요. 그리고는 처가 근처로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실을 마음에만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용서하려고 해요. 이런 내용을 자서전에 솔직히 적었어요.

(참여자 E) 나는 어릴 적 전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불우한 이웃 상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6학년이었는데, 학용품을 한아름 받아 가지고 와서는 엄마 앞에서 던져 버리며, 왜 엄마는 가난해서 나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냐고 엄마 마음에 비수를 꽂은 적이 있어요. 엄마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⁸⁶ 홍종임, 웰빙과 웰다잉은 한 곳 차이다, 38.

⁸⁷ 홍종임, 38.

⁸⁸ 홍종임, 39.

참여자 A 는 면담과정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였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상처들을 제거할 수 있고, 용서하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감정의 찌꺼기를 마음속에 담아둘 뿐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

3. 죽음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기대와 바람

[구원의 확신]

(참여자 G)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은 있지만 그것은 나만의 생각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여자 D)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확신이 들지 않아요.

[내세관]

(참여자 B) 내세에 관한 것은 사실 종교마다 다르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나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A)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참여자 F) 만약 내세가 없다면 누가 종교를 믿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믿기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자 G) 천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곳,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곳일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좋은 죽음]

(참여자 D)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죽는 것이요.

(참여자 E) 건강하게 살다가 임종 과정이 길지 않은 것입니다.

(참여자 C)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정신과 의식이 있는 것ियो.

(참여자 A) 아프지 않는 것이 최고지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허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김옥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정신과 교수인 패티슨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다:

노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이기 때문에, 고독이 무서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고 어찌 사나, 자기 지배 능력에 대한 두려움,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견딜까 하는 두려움, 가족이나 사회의 부담이 될까 하는 걱정으로 노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⁸⁹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D. 논의 및 해석

참여자들은 노년기 삶을 살면서 죽음을 직시하고 있었다. 죽음을 삶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다. 사실 죽음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⁸⁹ 김옥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85-86.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불안감은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거나 주변의 친구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죽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준비 면에서도 죽음준비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장에서는 이 죽음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6 회기 교육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완화 되었는가의 효과를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Chapter IV

죽음준비교육의 실제

이번 장에서 나는 죽음준비교육의 실재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심층면담을 통하여 죽음을 삶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었다.

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막연함, 죽음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봄대학 참여자들에게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실제적인 여섯번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실행 연구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반응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심층면담을 다시 진행하였다.

〈표 3〉 동대문교회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⁹⁰

회기	프로그램	내용	시간
1	오리엔테이션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 공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이유?	60 분
2	이론 교육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좋은 죽음이란?	40 분
3	관계도 그리기	소중한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사랑을 준 사람, 사랑한 사람 관계도 그리기	60 분

⁹⁰ 동대문교회 늘봄대학(노인대학)은 매년 2 회(3-6 월, 9-11 월) 매주 화요일 10 시부터 3 시까지 만나홀(모임장소)에서 30 여명이 모여서 시작하였고, 그 중에서 12 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심층면담을 하였다.

4	자서전 쓰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회상하며 자서전 쓰기	100 분
5	아름다운 삶의 마 무리	나의 사망기, 묘비명쓰기, 장례의향서,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법	60 분
6	남은 인생계획	버킷리스트, 유언장, 유품정리	60 분

A.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죽음준비교육이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도가 무엇이고,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나는 죽음준비 교육을 통해서 참여자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죽음 불안을 경감시키고, 죽음준비교육 이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6 주 과정으로 구성하였고, 첫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둘째 주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참여자들이 서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를 나누도록 하였다.

셋째 주는 소중한 사람과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과의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으면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넷째 주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글로 쓰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하였다.

다섯째주는 자신을 3 인칭으로 하여 자기 자신의 사망기를 작성해 봄으로써 본인의 마지막을 준비하여 보며, 내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좌우명을 써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례의향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 가지 의료행위를 선택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여섯번째 주에는,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친구와 동료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편지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보게 하였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일들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보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보고 하루하루를 계획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게 하였다.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장을 남김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자녀들 간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유언장과 유품정리를 작성하게 하였다.

B.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표 4〉 1 회기 /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주제	오리엔테이션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유의사항	글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노년층일 경우는 부담을 느끼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며, 도와주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p>→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p> <p>죽음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 어디서나 기피되어 왔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정신과 교수인 패티슨(Pattison)은 임종환자들이 흔히 갖고 있는 두려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⁹¹</p> <p>1) 죽음이 미지이기 때문에</p> <p>죽음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본적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상태의 공포(primitive fear)’라고 한다. 종교적으로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혹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지나 않을까, 극락 세계와 지옥, 나는 어디로 보내질 것인가 등의 ‘원시상태의 공포’로 인해 환자는 마음으로 떨고 있다.</p> <p>2) 고독이 무섭다</p> <p>대체로 병원에는 치료가 시급한 중증의 환자들이 많다. 따라서 별다른 치료 조치가 필요치 않은 말기 환자에게는 의사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노련한 간호사들 역시 급한 환자를 보살피기 바빠서 말기 환자를 자주 찾지 못한다. 이러할 때 환자는 인간적 고독을 느낀다.</p> <p>3)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고 어찌 사나</p> <p>사랑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친지 등을 떼어놓고 혼자 먼 길을 가야한다는 생각은 떠올리기만 해도 무섭다.</p> <p>4) 신체를 잃는다는 두려움</p> <p>자신의 신체가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진다. 혹은 불에 타서 재가 된다는 생각은 기분 나쁘고 무섭다.</p> <p>5) 자기 지배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p> <p>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혹은 내 정신이 몽롱해지고 치매 증세라도 나오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이 온다.</p> <p>6)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p> <p>환자들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을 상상하며 무서워한다.</p> <p>7) 가족이나 사회의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다</p> <p>일본에서는 고령자여성의 자살률이 매년 세계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대부분이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살의 길을 택한다.</p>
--	--

⁹¹ 김옥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86.

8) 인생을 불완전한 상태로 끝낸다고 하는 걱정

자신의 생애를 걸고 평생 하려고 했던 일이 미완성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그 허무함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때에 죽음은 자기의 필생 사업과 자신의 생애의 완성을 방해하는 념을 수 없는 장벽으로도 생각이 될 것이다.

● 죽음의 공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이유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산다. 요즘에는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침투되어 있다. 이는 죽음을 터부시해왔던 우리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을 주위에서 보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자기보존본능에 맞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연히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포가 과도하면 정상적인 정서 활동을 저해한다. 때문에 죽음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1) 죽음준비교육(Death Education)을 통하여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킨다.

죽음준비교육의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죽음의 공포를 완화하는 것이다. 죽음준비교육이 극도의 죽음 공포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미국에서 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죽음 그 자체를 체험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죽음을 우리와 매우 가까운 문제로 생각하고 죽음의 의의와 나아가 삶의 의미를 통찰해야 한다. 또한 무의식 중에 억압하고 있던 수동적인 공포를 의식화하고 고뇌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완화할 수 있다.

2) 죽음과 친숙해짐으로써 공포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죽음준비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사색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글을 읽음으로써 무의식 중에 죽음과 친숙해짐을 느낀다. 죽음도 사색하고 이야기하고 연구함으로써 친숙해지고 극도의 공포심이 사라진다.

3) 죽음 공포는 영원한 생명에의 희망으로 완화된다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인에게 있어 죽음이란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에 이르는 문인 것이다. 죽음 저편에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고뇌들을 어느 정도 견디어 낼 것이다.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대효과	1. 레크레이션 이후 자연스럽게 죽음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으며, 친밀감 형성과 죽음에 대한 느낌 나누기 등, 이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죽음완화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	--

<p>〈표 5〉 2 회기 죽음준비교육의 이론</p>

주제	죽음준비의 필요성 좋은 죽음이란?
유의사항	서로 모여서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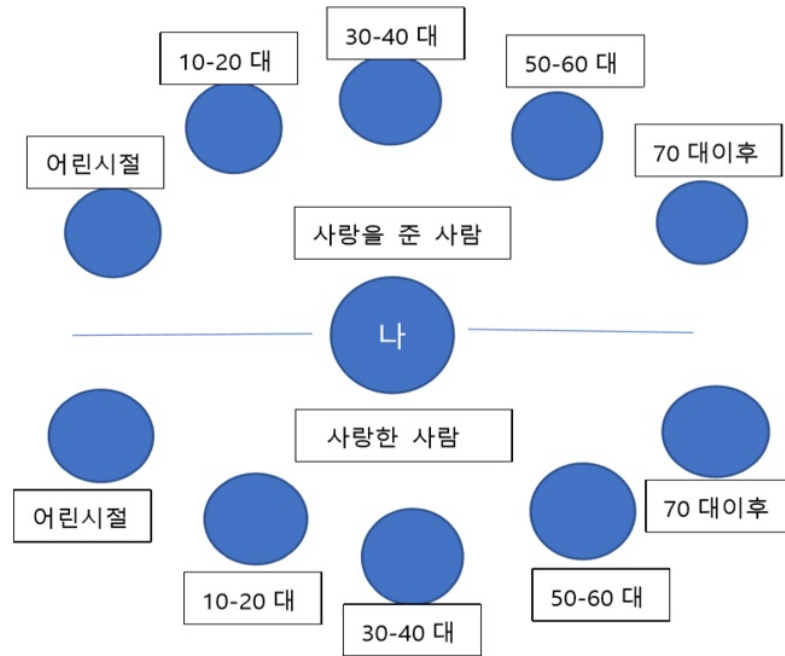
교육내용	<p>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p> <p>1) 인생을 재 인식하게 한다.</p> <p>독일의 실존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나의 인생 여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삶’과 ‘죽음’ 두선이 노끈 꼬이듯이 꼬여간다.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해 내는 것이다. 때문에 죽음 준비 교육은 보다 잘 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p> <p>2) 죽음 기피와 공포심을 불식하기 위하여</p> <p>사람들은 죽음이란 말도 하기 싫어하고 ‘죽음’이라는 글씨도 보기 싫어한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자연의 현상으로서, 삶의 현실로서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p> <p>죽음은 인간 삶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임에도 죽음에 대한 명확하고 창의적인, 철학적,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점점 죽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혼재된 문화와 종교로 인한 죽음의 오해와 편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죽음을 생물학적 생명의 종결로만 파악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되었다. 죽음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건으로 죽음은 자연적이며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다.</p> <p>3) 죽음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난제이기 때문이다.</p> <p>죽음은 인생의 최대 난제라고 말 할 수 있다. 죽음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누구나 너무 심한</p>
------	---

	<p>고통이 없이 이 관문을 통과하기를 바란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눈을 감기를 바란다. 죽음의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이고,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난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p> <p>우리나라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73.6%가 죽음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노인도 16.6%에 달한다.</p>
토의	죽음이란 무엇이며,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도록 한다.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죽음에 대한 이론과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토의하며 정의할 수 있게 된다. 2. 죽음을 준비하게 하며, 죽음의 공포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 6〉 3 회기 죽음준비교육

주제	<p>사랑을 준 사람, 사랑한 사람 관계도 그리기</p> <p>소중한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편지쓰기,</p>
유의사항	<p>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야한다.</p>
	<p>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되돌아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어린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2. 나의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3. 나의 삶 속에는 어떤 아픔과 갈등이 있었나요? 4.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p>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 라고 기억할 것이다.</p>

사랑해주신 분들과 사랑한 사람의 관계도를 그려봅시다.



교육내용

소중한 사람에게 잊고 있던 감사의 편지쓰기(감사의 마음 전하기)

나의 소중한 사람 ()에게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나의 소중한 () 사랑해요.

<p>용서할 수 없는 이에게 편지쓰기(화해의 마음전하기)</p> <p>내 마음에 맺혀 있는 ()에게</p> <hr/> <hr/> <hr/> <hr/> <hr/> <p>그래서 참 감사해요. 나의 소중한 () 사랑해요.</p>
--

용서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자신을 괴롭힌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 나는 그 동안 잃어버렸던 내면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용서는 자기 기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도 포함됩니다.

용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상처를 낸 상대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감정조절 능력을 키워 줄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닌 씩씩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며, 누구나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화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⁹²

기대효과	마음에 품고 있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다.
------	-----------------------------------

〈표 7〉 4 회기 죽음준비교육	
주제	자서전 쓰기
유의사항	인생주기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을 골라 붙이고 제목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⁹² 배중장, *힐다잉노트* (서울: 힐다잉연구센터, 2018), 8.

내 삶은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린시절은 부모의 돌봄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랐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중한 배우자와 자녀들, 직장동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 했나요?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은 무엇인지 남겨보세요

1. 어린시절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고향, 가족 이야기, 주요사건, 자랑거리 등)

2. 청소년 시절 추억이 담긴 사진과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3. 청년 시절의 사진과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감사했던 사람과 미안했던 사람)

	<p>4. 청장년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나의 행동 성격, 취미, 특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div> <p>5. 지금 현재 노년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인생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과 깨달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div>
기대효과	<p>1.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모형제, 친구, 동료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해 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회고하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p> <p>2.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솔직히 고백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게 해준다.</p>

〈표 8〉 5 회기 죽음준비교육	
주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나의 사망기, 묘비명 쓰기, 장례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의사항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조급하게 작성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고려한 후에 작성하게 하라.

죽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언제 죽을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삶을 정리해 보는 것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서전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사망기, 묘비명 쓰기, 장례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정리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손들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 안에서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가족과 세상에 남길 유산과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사망기

나의 사망기는 자신을 3 인칭으로 하여 부고를 작성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1. _____는 어제 ____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 그의 사망 원인은 _____이었다.
3. 그의 가족은 _____이며, 그는
의 구성원이었다.
4. 그는 사망한 그 때에 _____을 하고 있었다.
5. 그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_____것이다.
6. 그가 세상에 남긴 업적은 _____이다.
7. 그의 시신은 _____장으로 처리될 것이며, 장례식은 그의
유언에 따라 _____진행될 것이다.

나의 묘비명 쓰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좌우명이나 묘비명을 써봅시다.

예)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조지 버나드 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시인 천상병)

나의 묘비명 쓰기

	<p style="text-align: center;">사전장례의향서</p> <p>1. 장례식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장례식에 꼭 참석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나의 장례식에서 꼭 부르고 싶은 노래는? <input type="checkbox"/> 나의 장례식을 집례할 사람은? <input type="checkbox"/> 나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해줄 사람은? • 나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p>2. 내가 원하는 시신처리 방식에 표시하고, 다른 방식이 있다면 빈칸에 적어보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매장해주시기 바란다(선산, 가까운 공원묘지)</td><td style="width: 30%;"></td></tr> <tr> <td>화장 후 봉안(납골)해 주기 바란다.</td><td></td></tr> <tr> <td>화장 후 자연장(수목, 해양)해 주기 바란다.</td><td></td></tr> <tr> <td>의학적 연구 및 조직 활용 목적으로 기증하기 바란다.</td><td></td></tr> </table>	매장해주시기 바란다(선산, 가까운 공원묘지)		화장 후 봉안(납골)해 주기 바란다.		화장 후 자연장(수목, 해양)해 주기 바란다.		의학적 연구 및 조직 활용 목적으로 기증하기 바란다.	
매장해주시기 바란다(선산, 가까운 공원묘지)									
화장 후 봉안(납골)해 주기 바란다.									
화장 후 자연장(수목, 해양)해 주기 바란다.									
의학적 연구 및 조직 활용 목적으로 기증하기 바란다.									
기대효과	<p>1. 가족과 세상에 남길 유산과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본다.</p> <p>2. 실제적인 장례 절차를 작성해 보면서 훗날 장례시 자녀들이 겪게 될 혼선을 막을 수 있다.</p> <p>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 존엄성 및 자녀들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부담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p>								

〈표 9〉 6 회기 죽음준비교육	
주제	남은 인생 계획 버킷리스트, 유언장 및 유품 정리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 년 월일, 장소는 필수 기입 사항입니다.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미루어왔던 일들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보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보고 하루하루 계획한 일들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킷리스트 작성을 통해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씩 지워 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유언장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주소 :	
● 유언내용 :	
● 작성일 :	
● 작성 장소 :	
●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의 버킷리스트는? (죽기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기대효과	1.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보고 하루하루 계획한 일들을 실행해 보도록 한다. 2. 남은 노년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인생도 차분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게 된다.
------	--

C. 죽음준비교육 이후 삶의 변화

나는 죽음준비교육 이후 삶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행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실행연구는 지역적인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반성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개선점이나 해결책을 찾아간다.⁹³

실행연구에서의 연구자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고, 관찰하고, 반성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 들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게 된다.⁹⁴

실행연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행동하기, 관찰하기, 반성하기’의 순환적인 과정이 반복된다. 그리고 다르게 나타나면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실행하며, 평가하고,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⁹⁵

멀테루드(Malterud Kirsti)는 실행연구 과정은 ‘문제 진단하기, 실행계획 세우기, 실행하기, 평가하기’의 네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⁹⁶ 이 단계들은 역동적인 과정으로 모든 단계들은 이전 단계의 증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다음 단계를 정교화 하며, 그 과정은 질적이다.

⁹³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 II*, 425.

⁹⁴ 김영천, 425.

⁹⁵ 김영천, 425.

⁹⁶ 김영천, 426.

이처럼 실행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문제를 확인하거나 연구 영역 정하기, 자료 수집 방법 정하기, 자료 수집과 분석하기, 자료에서 나온 사실들을 사용하고 적용될 수 있는 방법 만들기, 실행을 위한 발견한 사실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등으로 이루어진다.⁹⁷

특히, 실행연구는 혼자 연구이기보다는 대부분 특수한 상황에서 출발하되 연구 참여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행연구에서는 연구 과정에서나 연구 문제에서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관리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되는 문제가 많으므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여야 한다.⁹⁸

실행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매일 하게 되는 행동과 관련된 유용한 실제적 지식을 생산해 주는 것이다.⁹⁹ 실행연구의 좀 더 넓은 목표는 이러한 실제적 지식을 통해서 인간 그리고 공동체의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심리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공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행연구는 실제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고 또한 이해를 위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 것이다.¹⁰⁰

이러한 실행연구는 현장에 대한 ‘문제’ 발견에서 시작된다.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는 과정으로 변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다. 실행에 대한 관찰 · 검토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얻은 것을 반성적 자료로 삼아 보다 나은 변화와 계획을 또다시 수립하게 된다.¹⁰¹

본 프로젝트도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⁹⁷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 II*, 426.

⁹⁸ 김영천, 426.

⁹⁹ 김영천, 437.

¹⁰⁰ 김영천, 438.

¹⁰¹ 김영천, 438.

연구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은 생애를 보다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죽음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보셨거나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석하시겠습니까?
3. 죽음준비교육 이후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4. 죽음준비교육 이후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5. 죽음준비교육 이후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3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1. 정서적 측면의 변화

죽음준비교육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을 알아본 결과 첫번째가 유언장 작성(4명) 두번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편지 쓰기(2명) 세번째가 버킷리스트(2명) 순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연구자들은 죽음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서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가치, 불안감정, 태도를 탐색하고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사별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과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감정적인 발산을 하였다. 배우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슬픔과 함께, 잘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고, 배우자와 지내온 아름다운 삶을 되

돌아보고 회한에 젖는 사람도 있었다. 일찍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연구참여자들은 슬픈 감정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삶의 감정들을 발산하였으며,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그러한 역경을 잘 극복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런 연구참여자들의 감정들의 발산은 공감과 위로를 통하여 감정들이 정리되고 정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죽음에 대한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죽음부정의 문화속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죽음과 죽음 준비에 대한 의미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죽음과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다가올 죽음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는 변화가 있었다.

(참여자 B)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서 제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너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썼고, 그 생각을 속에만 담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이게 내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제자를 찾아서 건네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면 좋겠고, 내가 죽고 나서라도 언젠가 그 편지를 읽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F)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언장에 적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내 유언장 맨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 밖에 없으니 기도 많이하렴.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보자라고 적으며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2. 인지적 측면의 변화

죽음준비교육 이후 죽음에 대한 인지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사람 중 4명은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2명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1명은 죽

음준비교육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1명은 변화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힌 첫번째 변화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죽음불안이란 넓게는 죽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공포, 혐오감, 파멸, 거부, 부정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통틀어 말한다. 좁게는 존재의 정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을 말한다. 즉 죽음불안은 모든 불안의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¹⁰²

따라서 죽음불안이나 죽음공포 등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죽음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장례준비, 호스피스, 장기기증, 사전연명의향서 등에 대한 관심과 필요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죽음준비교육을 통하여 좋은 정보와 지식을 인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인지적 변화가 있었다.

(참여자 A)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죽음을 회피하고 싶었고, 거부하고,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이 문제를 수용하게 되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는 것도 좋겠다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육이 이번 한번 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죽음교육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B) 지금은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두렵지 않고, 불안했던 생각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¹⁰² 김영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웰다잉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MA thesis, 대구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2019), 22.

(참여자 F) 죽음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교육 등을 통해서 좋은 경험과 정보를 얻은 것 같아 아주 좋았습니다.

(참여자 D) 6 주 죽음교육이 물론 유익했지만 아직까지는 삶에 변화를 준 것 같지는 않다. 잘 모르겠다.

3. 행동적 측면의 변화

죽음준비교육 후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과 내세관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내세관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참여자 중 1 명은 마음이 편하여 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랑, 용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들에게 하지 못했던 용서와 사랑의 말을 표현하며 작별인사도 준비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C) 내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자서전을 쓰면서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하나님, 순간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 것 같아 좋아요.

(참여자 E)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일이 꼬이면 좋겠고, 잘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서 마음이 편하여 지고, 이런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인 것 같아요.

Chapter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죽음준비교육이 기독교인의 죽음 인식과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죽음준비교육의 사례를 통하여 그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을 미리 단순히 알아보거나 체험해 보자는 것이 아니다. 죽음준비교육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억하고(Memento mori)¹⁰³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교육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¹⁰⁴

죽음이 삶과는 분리될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여겨 대화를 기피하며,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할 때 가능하다.¹⁰⁵

이 프로젝트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층면담과 실행연구를 통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노년층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돕고 죽음불안의 감소와 죽음준비교육이후 신앙과 삶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변화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후 참여자들의 죽음 불안과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 사실 늘봄대학 분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을 계획하고, 소개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모험이었고, 도전이었다. 죽음준비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할 수도

¹⁰³ Memento mori: “죽는 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

¹⁰⁴ 황창익,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수요에 관한 연구” 13.

¹⁰⁵ 정복례, “죽음교육 의미와 방향,” *경북간호과학지* vol. 10, no. 2 (February 2006): 49-60.

있고,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먼저 죽음준비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강조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참여자 8명 중 네 명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으며, 두 명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둘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후 참여자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 내세관과 구원의 확신에 변화가 있었다. 교육 참여자의 대부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죽음준비교육 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확고한 내세관을 가지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

셋째, 지나온 생을 정리하면서 남은 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죽음을 볼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이 늘 존재하였고,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함이 있었다. 그러나 죽음준비교육을 통해서 유언장, 영정사진, 자서전, 장례의향서, 버킷리스트 등을 남겨서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하였다.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은 없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그냥 따라와준 분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전화 면담을 한 결과 6주간의 교육 중 3주간동안 이런 불편함을 느꼈던 한 명의 참여자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적인 프로그램보다 이론적인 교육을 할 때 내면적인 저항이 있었다고 하였고, 개인 교육보다 집단교육을 할 때 거부감이 조금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프로그램과 개별 면담을 통해서 조금씩 그 거부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 초기저항을 느꼈던

연구참여자는 최근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죽음에 대한 언급이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편지쓰기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죽음준비교육의 유익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늘 연구참여자들의 외적·내적 불편함이나 저항에 대한 깊은 관찰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품위 있는 죽음준비교육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준비교육이나 사회적 제도의 틀도 확립되지 않은 채로, 빠르게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죽음준비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노년층의 죽음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 사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죽음준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죽음준비교육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로 한 예산 확보 및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유익과 필요성을 강조하여 교회 안에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목회의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정서와 교회에 현실에 맞는 교재의 선택과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죽음준비교육을 주도하는 강사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생명윤리에 대한 깊은 사색과 연륜 그리고 검증을 통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임종 돌봄을 위해 교회 내 호스피스팀을 구성하여 가정 호스피스의 교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구조적 현실과 죽음의 의료화로 인한 병원에서의 임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임종 장소는 익숙한 내 집에서 임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¹⁰⁶ 임종자들은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 내 호스피스 역할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충분하고 성숙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에 늘봄대학에서 죽음준비교육을 하기에 앞서 목회자들의 선 교육이 있었다. 그로 인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고령사회속에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런 교육이 동대문교회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한 국교회안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종교관을 가지며, 그에 따르는 구원의 확신과 죽음관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촉진과 적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 시기나 일정, 교육적 기본내용들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이거나 지나친 프로그램으로 느껴지게 되어서 참여자들에게 거부감이나 불쾌감 또는 불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죽음준비교육은 평생교육으로 노년기 뿐만 아니라 교회 전 구성원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함으로, 죽음의 문제가 노년층 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점점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이고, 가정이 아닌 병원 등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죽음의 고통과 염려, 불안의 문제, 죽음이해의 문제, 죽음준비의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¹⁰⁶ 장경희, “기독교 죽음준비교육이 죽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익산 삼일교회 죽음준비교육을 중심으로” 66.

이런 죽음의 문제로 인한 갈등들은 앞으로 더 심각하여 질 것이며, 죽음준비교육의 요청은 더 증가할 것이다. 내가 만약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상황에 대한 연민적 시선과 비판적 시각을 배우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시대의 노년층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 해결책의 하나인 죽음준비교육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노년층들이 겪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요청을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부록: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nue, Claremont, CA91711) 목회학 박사 과정중에 있는 박호영 목사입니다. 저는 “죽음교육을 통한 노인의 정서, 인지, 행동 변화에 대한 탐구: 동대문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시는 김용환, 김남중 교수님의 지도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njkim@cst.edu)로 연락하시거나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한 시간정도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되는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고 논문 연구가 끝나면 모두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되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든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 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박호영 목사의 전화번호 ***-****-****은 이메일 young7824324@naver.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 번호는 (2019-10)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 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은 viastar@hanmail.net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_

날짜: _____

연구참여자의 서명: 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

날짜: 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

참고문헌
(Bibliography)

[한서]

김성민. *생명의 의미와 새로운 그리스도*. 서울: 다산글방, 2004.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 *질적 연구 방법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노년정책자료집. *100 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감리교회의 노년목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8.

배중장. *힐다잉노트*. 서울: 힐다잉연구센터, 2018.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and 임호용.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7.

이창복. *삶을 위한 죽음의 미학*. 서울: 김영사, 2019.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2001.

전재규. *통전적 치유와 건강*. 대구: 보문출판사, 2005.

정동호. *철학 죽음을 말하다*. 서울: 산해, 2004.

한국문화신학회. *죽음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기: 그리스도교의 죽음관*. 서울: 한들출판사, 2004.

홍숙자. *노년학 개론*. 서울: 하우, 2010.

홍종임. *웰빙과 웰다잉은 한 곳 차이다*. 서울: 북랩, 2018.

[편집서]

김경제. “죽음이해.” In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5쇄 증보판*, edited by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6.

김옥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In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edited by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

[번역서]

알폰스 데켄. 生き よく笑い よき死と出會う *잘 살고 잘 웃고 좋은 죽음과 만나다*. Translated

by 김태영. 서울: 예감, 2017.

Epikouros. *Pleasure 쾌락*. Translated by 오유석. 서울: 문학과 지성, 1982.

King, Nigel., and Horrocks Christine.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Plato. *The Dialogues of Plato 플라톤의 네 대화편*. Translated by 박종현. 서울: 서광사, 2011.

[저널]

강경아. “죽음준비교육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삶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

중앙간호학회지 vol. 10, no. 2 (February 2010): 156–62.

김연숙 and 김지미. “노인의 사회 인구적 특성과 죽음불안: 죽음불안의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1 (January 2009): 275–89.

박노권. “다원주의 시대에서 죽음에 대한 신학적 접근.” *기독교사상논단* vol. 1, no. 12

(December 1999): 32.

서혜경. “죽음을 준비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제언.” *한국노년학회* vol. 1 (January

1992): 11-17.

이은성. “고령화 시대 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당면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vol. 40, no. 40 (December 2014): 387-419.

정명선.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 치료가 노인이 죽음 불안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학회 vol. 11, no. 2 (February 2004): 231-56.

정복례. “죽음교육 의미와 방향.” *경북간호과학지* vol. 10, no. 2 (February 2006): 49-60.

최광현.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목회상담의 실천적 가능성을 위한 연구.”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

학회 vol. 19 (November 2012): 245-69.

[학위논문]

김선숙. “한국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PhD diss.,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6.

김영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웰다잉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MA thesis,

대구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2019.

박진홍.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ThM thesis, 목원대학교대학원, 2007.

서 현. “죽음 이해의 유형론 중 기독교적 죽음이해 연구: 기독교적 장례를 위한 제언.”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5.

성태순. “그리스도인의 죽음준비와 임종자를 위한 교육 목회적 돌봄 연구.” ThM thesis,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4.

신교남.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죽음이해와 죽음교육.” PhD diss.,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8.

이이정.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장경희. “기독교 죽음준비교육이 죽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익산 삼일교회 죽음준비교육을

중심으로.” MA thesis., 한림대학교 대학원, 2016.

정을용. “죽음의 이해와 관계적 돌봄에 관한 연구.” ThM thesis, 협성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

정정교.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황명환. “죽음이해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PhD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황창익.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에 관한 연구.” MA thesis,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뉴스 및 웹사이트]

유성열. “정부,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큰 틀 바꾼다.” 국민일보, December 29, 2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9224>.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추계.” Last modified December 18, 2016.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57935.

황보연 and 김경옥. “50년뒤 노인비중 세계최고.” *한겨레 신문*, December 28, 2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475.html#csidx2c91450c1b462f3b7cadb396fff918e.

Daum. “인구 고령화.” 백과사전 천재학습백과. Accessed December 30, 2018.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58331>.

Naver. “연명의료결정법.” 지식백과. Accessed February 13,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743&cid=43667&categoryId=43667>.

Naver. “고령화 사회.” 두산백과. Accessed December 30, 201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1549&cid=40942&categoryId=31611>.